

경영정보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5년 6월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 다양성 평가*

김기문**, 박충신**, 김준석**, 이호근**, 임건신**

An Empirical Study on Research Diversity in “Journal of MIS Research”

Gi Moon Kim, Choong Shin Park, Joon Seok Kim,
Ho Geun Lee, Kun Shin Im

This study assessed diversity in MIS research by examining 357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MIS Research from 1991 to 2003. The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ed by Vessey et al. (2002) was employed to examine research diversity of the articles. The classification system comprises four key characteristics of diversity such as research topic, research method, level of analysis, and reference discipline. The results of our study were also compared with Vessey et al.(2002)'s results to address problems in current MIS research and to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MIS research in Korea.

Keywords : Research Diversity, MIS Research, MIS Research Diversity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로부터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I. 서론

한국에서의 경영정보학은 1989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창설되고, 1991년 7월에 “경영정보학연구”가 발간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영정보학연구”는 발간 이래로 한국의 경영정보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왔으며, 경영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주요 매체로 발전하여 왔다. 발간 이후 2003년까지 “경영정보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편수 만도 400편에 달하는 명실공히 한국의 경영정보학을 대표하는 학술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학자들 사이에 경영정보학의 학문적 위상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즉, 경영정보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경영정보학이 하나의 고유한 학문분야로써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영정보학의 정체성(identity)과 지속성(vitality)에 대한 논의가 경영정보학 연구에 있어서의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논의로 구체화되어 오고 있다[Benbasat and Weber, 1996; Benbasat and Zmud, 2003; Robey, 1996; Vessey 등, 2002; Watson 등, 1999].

경영정보학 연구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연구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연구주제의 다양성, 이론적 근거가 되는 참고학문 영역의 숫자,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의 범위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Benbasat and Weber, 1996; Robey, 1996]. 이러한 연구 다양성이 경영정보학의 위상과 발전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 다양성의 학문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Robey[1996]는 경영정보학내에서의 연구 다양성은 경영정보학의 토대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타 분야의 연구자들을 유치하였으며, 연구자의 창조성과 학문적 자유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경영정보학이 하나의 응용학문분야라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응용학문으로써 경영정보학은 그 시작부터 여러 다른 참고학문 영역에서 개발된 이론들을 경영정보학 이론의 토대로 사용하여 온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다양성이 경영정보학의 학문적 위상 정립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면 Lucas[1999]는 다양성은 연구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경영정보학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야로 간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학문적 공헌이 적은 연구들을 양산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연구 다양성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Benbasat and Weber[1996]도 다양성이 경영정보학의 존속(vitality)에 큰 위협을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 참고분야 영역으로부터 각각의 분야에 맞는 측정치들, 용어들, 개념들, 그리고 연구 패러다임들을 지닌 이론들이 계속해서 경영정보학 분야로 급격히 스며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경영정보학 분야가 하나의 분야로 결집될 수 없게 되는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영정보학이 타 학문분야와 구별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경영정보학의 위상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의 상반되는 의견을 지닌 연구자들이 갖는 공통된 생각들이다. 경영정보학 연구의 다양성은 학문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학문영역과의 구별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경영정보학 고유의 이론들을 정립해야 할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을 도외시하기 위한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Benbasat and Weber, 1996]. 현재 경영정보학의 영역을 특징 지우는 이론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론들을 더욱 발전시켜서 경영정보학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경영정보학 연구의 다양성을 지향하기 보다는 통제된 다양성(controlled diversity)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Benbasat and Weber, 1996].

이러한 연구의 다양성에 대한 의견 하에서 “과연 얼마나 국내에서 경영정보학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외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경영정보학 연구의 다양성을 평가 분석하여 경영정보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평가한 바가 있다[예를 들면, Alavi and Carlson, 1992; Culnan, 1986; 1987; Hamilton and Ives, 1982a; 1982b; Farhoomand, 1987; Swanson and Ramiller, 1993; Vessey 등, 2002]. 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영정보학 연구의 다양성 평가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경영정보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경영정보학연구”에 발표된 연구들이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 참고학문 영역 등 네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국외 경영정보학 연구의 다양성 평가와 비교함으로써 앞으로의 한국 경영정보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2.1 연구의 다양성 평가에 관한 선행 국외 연구

경영정보학 연구자들은 참고학문영역, 분석단위,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의 관점에서 학문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이러한 다양성 기준들을 활용하여 경영정보학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Alavi and Carlson, 1992; Barkhi and Sheetz, 2001; Benbasat and Weber, 1996; Culnan, 1986; 1987; Farhoomand, 1987; Hamilton and Ives, 1982; Robey, 1996; Swanson and Ramiller, 1993; Vessey 등, 2002].

예를 들어, Culnan[1986; 1987]은 상호인용 분석(co-citation analysis)을 통하여 연구 분야를 검토하였고, Hamilton and Ives[1982a; 1982b]는 인용의 빈도수와 연구변수의 종류를 이용하여 경영정보학 지식의 전파속도와 연구분야를 조사하였다. Farhoomand[1987]와 Alavi and Carlson[1992]은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Swanson and Ramiller[1993]는 연구주제와 참고학문영역에 대하여 1987년부터 1992년까지 *Information Systems Research*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함으로써, 경영정보학 연구자들은 다른 참고학문영역을 활용하는 한편, 그 이상으로 다른 참고학문영역에 기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최근에는 Vessey, Ramesh and Glass[2002]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참고학문영역, 분석단위 등 4가지 기준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의 주요 학술지들에 게재된 논문들의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그들은 경영정보학 연구가 연구주제로는 조직에 대한 연구를, 연구방법으로는 서베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론적 근간으로써 많은 다양한 분야를 참고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조직단위로 이루어졌었다고 평가하였다.

2.2 연구의 다양성 평가에 관한 선행 국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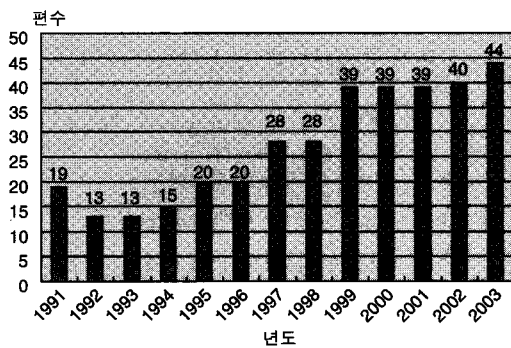
국내의 경우 경영정보학의 연구경향에 대한 연구는 백상용과 박경수[1995]의 연구가 전부이다. 백상용과 박경수[1995]는 1974년부터 1993년까지 “경영학연구”, “경영과학”, “경영정보학연구”에 게재된 89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변수의 종류 및 빈도수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영정보학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고, 한국의 경영정보학은 독자적이기 보다는 미국의 연구경향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연구는 “경영정보학연구”가 발간된 지 불과 3년밖에 안되는 시점에서 “경영정보학연구”에 게재된 45편이란 적은 숫자의 논문만을 분석하였다. 2003년 현재 13년의 역사를 지닌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경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의 경영정보학을 대표하는 전문학술지인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 경향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특히, 연구의 다양성 측면에서 “경영정보학연구”와 세계적인 경영정보학 학술지들간의 비교검토는 향후 “경영정보학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표본 선정

본 연구는 “경영정보학연구”가 창간된 1991년부터 2003년 말까지의 총 367편중 특별 호에 실린 10편을 제외하고 총 357편의 논문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¹⁾ 2003년까지 ‘경영정보학



<그림 1> 년도별 논문 편수

1) 제외된 10편의 논문은 EIS/DS 관련한 특집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연구의 다양성을 진단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연구’에 게재된 년도별 발표논문 수는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발표 논문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3년에 발표된 논문 수 44는 창간 년의 발표 논문 수인 19의 2배가 넘는 숫자이다.

3.2 측정기준

본 연구는 Vessey 등[2002]이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 평가를 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 참고학문 영역 등의 네 가지 기준영역들과 각 기준영역의 세부 항목들을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 진단을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Vessey 등[2002]은 경영정보학 연구의 모든 연구주제 영역들 (행위적, 기술적, 조직적 측면)을 포함시키기 위해 ACM computing classification system [ACM, 1998], Barki 등[1988; 1993]의 분류체계와 Glass[1992]가 제시한 분류체계 등을 결합함으로써 현재까지 개발된 분류체계 중 가장 포괄적인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연구주제 분류기준은 컴퓨터 개념 (computer concept),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념 (systems/software concepts), 데이터/정보 개념 (data/information concepts), 문제 영역-특정 개념 (problem domain-specific concepts),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개념 (systems/software management concepts), 조직개념 (organizational concepts), 사회개념 (societal concepts), 학문영역 이슈 (disciplinary issue) 등 8개의 개념적 영역들을 포함한다. 각 연구주제의 분류기준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세부항목들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2>에는 연구방법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기준들과 세부 연구방법의 개념적 정의가 정리되어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개념적으로 관련된 연구방법들을 하나의 분류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Vessey 등, 2002]. 예를 들어 분

<표 1> 연구주제 분류기준

분류기준	설명 및 세부 항목	참고문헌
컴퓨터 개념 (computer concept)	개념정의: 컴퓨터 자체의 운용, 성능 등을 다루는 논문들 세부항목: (1) 컴퓨터/하드웨어원리/아키텍처(computer/hardware principles/architecture), (2) 컴퓨터간 의사소통(inter-computer communication-networks, distributed systems), (3) 운영시스템(operating systems), (4) 기계/어셈블러 수준 데이터/명령어(machine/assembler-level data/instructions)	ACM[1998], Barki 등[1988; 1993], Glass[1992]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념(systems/software concepts)	개념정의: 시스템 개발 방법, 언어, 보안 등 소프트웨어 개발 이슈를 다루는 논문들 세부항목: (1) 시스템 아키텍처/엔지니어링(system architecture/engineering), (2) 시스템 수명주기/엔지니어링(software life cycle/engineering), (3) 프로그래밍 언어(programming languages), (4) 방법/기법(methods/techniques-reuse, patterns, parallel processing, process models, data models, etc), 도구(tools-compilers, debuggers), (5) 제품품질(product quality-performance, fault tolerance), (6)인간-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7) 시스템 보안(system security)	ACM[1998], Barki 등[1988; 1993], Glass[1992]
데이터/정보 개념 (data/information concepts)	개념정의: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이슈를 다루는 논문들 세부항목: (1) 데이터/파일구조(data/file structures), (2) 데이터베이스/웨어하우스/마트체계(database/warehouse/mart organization), (3) 정보검색 (information retrieval), (4)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 (5) 데이터 보안(data security)	ACM[1998], Barki 등[1988; 1993], Glass[1992]
문제 영역-특정 개념(problem domain-specific concepts)	개념정의: DSS, EIS, 인공지능/전문가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시스템 설계 또는 개발과 관련한 이슈들을 기술하는 논문들 세부항목: (1) 과학적/공학적 (scientific/engineering - bio-informatics), (2)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 - decision support, group support systems, expert systems), (3) 시스템 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4) 리얼타임 로봇(real-time-robotics), (5)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graphics)	ACM[1998], Barki 등[1988; 1993], Glass[1992]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개념 (systems/software management concepts)	개념정의: 프로젝트 또는 시스템 관리와 관련한 이슈를 다루는 논문들 세부항목: (1)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2) 프로세스관리(process management), (3) 측정/메트릭스 (measurement/metrics - development and use), (4) 개인적 이슈(personal issues)	Glass[1992]
조직개념 (organizational concepts)	개념정의: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IT의 기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는 논문들 세부항목: (1)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2) 전략(strategy), (3) 조직합치(organizational alignment-BPR), (4) 조직학습/지식관리(organizational learning/knowledge management), (5)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innovation, acceptance, adoption, diffusion), (6)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 (7) IT이행** (IT implementation), (8) IT 사용/운영(IT usage/operation), (9)컴퓨팅 기능의 관리*** (management of computing function), (10)IT 영향(IT impact), (11)비즈니스로서 컴퓨팅****/정보(computing/information as a business), (12) 법적/윤리적/문화적/정치적 시사점(legal/ethical/cultural/political (organizational) implication)	Barki 등 [1988; 1993], Glass[1992], Kwon and Zmud[1987], Lai[1997]
사회개념(societal concepts)	개념정의: 사회에 대한 IT의 영향을 다루는 논문들 세부항목: (1)문화적 관계(cultural implication), (2)법적 관계(legal implication), (3)윤리적 관계(ethical implication), (4)정치적 관계(political implication)	Barki 등[1988; 1993], Glass[1992]
학문분야적 이슈 (disciplinary issue)	개념정의: 학문분야로서 정보시스템 연구에 대한 고찰을 다루는 논문들 세부항목: (1)컴퓨팅 연구(computing research), (2)컴퓨팅 교육과정/교육(computing curriculum/teaching)	Barki 등[1988; 1993]

주) *기술이전: 기술의 채택, 확산, 수용,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태도, 행위 등의 요인들을 검토하는 논문들; **IT이행: 이행 프로세스, 전략, 경험 등과 같은 조직내에 시스템 구현을 둘러싼 이슈들을 다루는 논문들; *** 컴퓨팅 기능의 관리: 정보시스템 계획, 서비스 품질,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등의 이슈들을 다루는 논문들; ****비즈니스로서 컴퓨팅: 컴퓨팅 산업내에 포함된 기업들을 둘러싼 이슈들을 검토하는 논문들

<표 2> 연구방법 분류기준

분류기준	실용적 방법	참고 문헌
개념적분석 (conceptual analysis)	텍스트내에 선정된 용어 또는 개념의 발생빈도를 찾는 것과 같은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한 논문들	Prewitt[2002]
개념적/수리적 분석 (conceptual analysis/mathematical)	개념적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저널의 검토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논문들	Jenkins[1985], Rademacher[2001]
사례연구 (case study)	(1) 사례연구 (2) 행동 연구(action research): “learning by doing”에 의한 방법으로 참여연구(participatory research)를 수행하는 논문들 (3) 문화기술적 연구(ethnography): 연구대상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논문들 (4)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이론 개발을 위해 귀납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논문들	Alavi&Carlson [1992], Cheon 등[1993], Claver 등[2000], Farhoomand and Drury [1999], Hamilton and Ives[1982], Harrison and Wells [2000], Jenkins[1985]
데이터 분석 (data analysis)	(1) 데이터 분석: archival data를 이용한 논문들 (2)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	Harrison and Wells [2000], Jenkins[1985], Lai and Mahapatra[1997]
현장 연구 (field study)	(1) 서베이를 통한 현장 연구 (2) 기술적/탐험적 서베이(descriptive/exploratory survey)	Alavi and Carlson[1992], Cheon 등[1993], Claver 등[2000], Farhoomand and Drury [1999], Hamilton and Ives[1982], Harrison and Wells [2000], Jenkins[1985]
도구 개발 (instrument development)	개념에 대한 측정항목 개발과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들	Alavi and Carlson[1992]
실험실 실험 (laboratory experiment—human subjects)	(1) 실험실 실험 (2) 프로토콜 분석(protocol analysis): 문제-해결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think aloud” 방법을 사용하는 논문들 (3) 현장 실험(field experiment):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실험적 방법을 적용한 논문들	Alavi and Carlson [1992], Cheon 등 [1993], Claver 등[2000], Farhoomand and Drury [1999], Hamilton and Ives[1982], Harrison and Wells [2000], Jenkins[1985]
시스템 평가 (systems evaluation)	(1) 시스템 평가: 시스템 또는 시스템 구성요소를 평가 하는 논문들 (2) 실험실 실험 (laboratory experiment—software): 다양한 차원들에 대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시스템들을 비교하는 논문들 (3) 개념적 구현 (concept implementation—proof of concept): 제안된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는 논문들 (4) 시뮬레이션 (simulation):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한 논문들	Jenkins[1985], Lai and Mahapatra[1997], Nunamaker et al.[1991]

류기준이 사례연구인 경우 수행방법에 따라 사례연구, 행동연구, 문화기술적 연구,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등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사례연구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방법으로 유형화하였다.

<표 3>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분석단위는 크게 사회, 연구공동체, 조직간환경, 조직환경, 프로젝트, 그룹/팀, 개인, 추상적 개념, 컴퓨팅시스템, 컴퓨팅요소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Vessey 등, 2002], 개념적 혼돈을 피하고자 각 분석단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표 4>는 참고학문 영역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정보학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로 삼는 참고학문 영역들로는 인지 심리학(cognitive psychology), 사회/행동 과학(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컴퓨터 공학(computer science), 경제학(economics),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 경영관리(ma-

agement),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 등과 이러한 참고학문 영역들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학문영역들(예: 마케팅)을 ‘기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고학문 영역이 없는 논문이나 여러 참고학문 분야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핵심 참고학문 영역을 결정하기 어려운 연구들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Vessey 등, 2002].

3.3 측정방법

분류연구(classification study)와 인용연구(citation study)는 경영정보학 분야의 연구 상황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이다. 인용연구는 참고문헌의 검토를 통하여 다른 학문영역에 대한 경영정보학 연구의 의존 정도만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Alavi and Carlson, 1992;

<표 3> 분석단위 분류기준

분류 기준	설 명	참 고 문 헌
사회(society)	조직 상황과 관련이 없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사회적 수준에서의 정보시스템 문제를 검토하는 논문들	Bariff and Ginzberg [1982], Basu and Blanning [1998], Benbasat and Weber [1996], Dennis 등 [1998], Grover 등 [1995], Lai and Mahapatra[1997], Wang[1995]
연구공동체 (profession)	강의 또는 연구에 기여하는 형식으로 정보시스템 연구공동체 자체에 기여하는 논문들	
조직간 환경 (interorganizational context)	두 조직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논문들	
조직 환경 (organizational context)	하나의 조직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들	
프로젝트 (project)	프로젝트 관리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슈들과 같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논문들	
그룹/팀(group/team)	그룹이나 팀 단위의 논문들	
개인(individual)	개인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논문들	
추상적 개념 (abstract concept)	데이터 모델 또는 수학적 함수와 같이 computing concept에 초점을 맞추는 논문들	
컴퓨팅 시스템 (computing system)	시스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논문들	
컴퓨팅 요소 (Computing element-program, component, algorithm)	프로시저 또는 알고리즘과 같은 computing element에 초점을 맞추는 논문들	

<표 4> 참고학문 영역 분류기준

분류기준	분류방법	참고문헌
인지 심리학 (cognitive psychology)	인지 심리학을 참고학문 영역으로 삼은 경우	Bariff and Ginzberg[1982]; Barki 등[1988; 1993]; Westin 등[1994]
사회/행동 과학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사회학이나 행동 과학을 참고학문 영역으로 이용한 경우	Bariff and Ginzberg[1982]; Barki 등[1988; 1993]; Keen[1980]; Westin 등[1994]
컴퓨터 공학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공학을 참고학문 영역으로 사용한 경우	Culnan[1986]; Keen[1980]; Swanson and Ramiller[1993]; Westin 등[1994]
경제학 (economics)	경제학을 참고학문 영역으로 삼은 경우	Keen[1980]; Swanson and Ramiller[1993]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s)	이전의 경영정보학 논문들을 이론적 근거로 언급한 경우	
경영관리(management)	경영관리를 참고학문 영역으로 삼은 경우	Bariff and Ginzberg[1982]; Barki 등[1988; 1993]; Culnan[1986]; Swanson and Ramiller[1993]; Westin 등[1994]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경영과학을 참고학문 영역으로 삼은 경우	Culnan[1986]; Swanson and Ramiller[1993]; Westin 등[1994]
기타 영역 (other)	이상의 참고학문 영역 이외의 학문을 참고한 경우	Vessey 등[2002]
해당없음 (not applicable)	다수의 참고학문 영역을 참고하였지만 핵심적인 하나의 참고학문 영역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전혀 참고학문 영역이 없는 경우	Vessey 등[2002]

Cheon 등, 1993]. 이에 반해, 본 연구가 채택한 분류연구는 키워드나 텍스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 참고학문 영역등과 같은 관심있는 범주들로 분류, 코딩하는 방법으로써 경영정보학 연구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Cheon 등, 1991; Culnan, 1986; Culnan and Swanson, 1986; Vessey 등, 2002].

연구주제를 분류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자 [Alavi and Carlson, 1992; Farhoomand and Drury, 1999; Palvia 등, 1996; Swanson and Ramiller, 1993]들은 논문요약, 제목, 키워드를 통해서 주제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키워드 리스

트나 요약문은 몇 가지의 주제어를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들로부터 하나의 주제를 추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 논문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하나의 주된 연구주제를 결정하였다[Vessey 등, 2002].

연구방법에 대한 분류는 각 논문의 연구방법 부분에 제시된 연구방법을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분석단위는 가설과 연구방법 부분을 검토하여 분류하였으나 명확하게 분석단위를 언급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전체 논문의 검토를 통해 각 해당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참고학문 영역에 대한 분류는 선행연구 또는 이론적 배경 부분을 검토하여 분류하였다. 많은 이론적 참고학문 영역을 인용하는 논문들에 대해서는 연구

모형 또는 연구가설 도출에 핵심적으로 사용된 하나의 참고학문 영역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참고학문 영역이 없는 논문이나 여러 참고학문 영역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핵심 참고학문 영역을 결정하기 어려운 연구들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였다[Vessey 등, 2002].

3.4 측정절차

총 357편의 경영정보학 연구들을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 참고학문 영역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다. 분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세부 항목들에 대한 의견교환을 세 명의 평가자들 간에 충분히 행한 이후 평가지를 작성하였다.2) 준비된 평가지를 사용하여 세 명의 평가자 중 두 명의 평가자가 약 4개월에 걸쳐 357편의 논문에 대한 분류 작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두 평가자가 각자 분류한 자료에 대하여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코헨의 카파 계수(Cohen’s Kappa coefficien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Cohen, 1960]. 각 다양성 분류 기준에 대한 카파 계수값은 연구주제 0.81, 연구방법 0.74, 분석단위 0.76, 참고분야영역 0.75로 계산되었다. Landis and Koch[1977]에 의하면 카파 계수값이 0.61과 0.80사이에 해당하면 매우 신뢰할 수 있고, 0.81이상이면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네 다양성 분류영역에서 모두 카파 계수값이 0.70이상 이기 때문에 두 평가자의 분류 자료는 매우 신뢰할 만 하고, 이는 어느 한 평가자의 자료만을 결과 분석에 사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료분류의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두 평가자의 의견 불일치를 보인 항목에 대해서 세 번째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조정된 분류 자료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4.1 다양성 기준영역별 논문 편수

<표 5>는 “경영정보학연구”에 1991년부터 2003년까지 게재된 357편의 논문을 다양성 기준 영역별 세부항목들로 분류한 결과를 보여 준다. 연구주제는 조직개념(48%)이 171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념(19%)이 66편, 문제 영역-특정 개념(11%)이 38편 순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세분하였을 경우에도 조직개념에 관한 연구들이 1991년에서 1994년사이 40%, 1995년에서 1999년 사이 38%, 2000년에서 2003년사이 59%로 꾸준히 가장 많이 행해졌으며, 2000년 이후에 더욱 증가하고 있다.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념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 이후에 다소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 영역-특정 개념에 관한 연구들도 초기에는 큰 비중으로 행해졌으나 차츰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방법에서는 전체기간에서 서베이에 의한 현장연구(50%)가 180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73편의 시스템 평가(20%) 방법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살펴 보았을 때 현장연구의 비중이 1991년부터 1994년 사이 38%, 1995년에서 1999년 사이 41%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63%의 경영정보학 연구가 현장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평가는 꾸준히 20%내외의 경영정보학 연구에서 전 기간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2) 세 명의 평가자 중 두 명은 경영정보학을 전공으로 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로서 7년 이상의 경영정보학에 대한 학습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자들이며, 세 번째 평가자는 경영정보학 전임 교수로 다수의 논문을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등의 국외 주요 경영정보학 학술지에 발표를 한 바가 있는 연구자이다.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 다양성 평가

<표 5> 다양성 영역별 논문 편수

연구주제	년도별 분류		(1991~1984)		(1995~1999)		(2000~2003)		(1991~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컴퓨터 개념	2	3.3	2	1.5	1	0.6	5	1.4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념	9	15.0	31	23.0	26	16.0	66	18.5			
데이터/정보 개념	9	15.0	9	6.7	12	7.4	30	8.4			
문제 영역-특정 개념	11	18.3	15	11.1	12	7.4	38	10.6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 개념	2	3.3	18	13.3	13	8.0	33	9.2			
조직 개념	24	40.0	51	37.8	96	59.3	171	47.9			
사회 개념	1	1.7	1	0.7	1	0.6	3	0.8			
학문분야로써의 이슈	2	3.3	8	5.9	1	0.6	11	3.1			
연구방법	합계	60	100(%)	135	100(%)	162	100(%)	357	100(%)		
개념적 분석	7	11.7	14	10.4	2	1.2	23	6.4			
개념/수리적 분석	2	3.3	4	3.0	5	3.1	11	3.1			
사례 연구	8	13.3	13	9.6	10	6.2	31	8.7			
데이터 분석	3	5.0	10	7.4	5	3.1	18	5.0			
현장 연구	23	38.3	55	40.7	102	63.0	180	50.4			
도구 개발	2	3.3	0	0.0	0	0.0	2	0.6			
실험실 실험	3	5.0	9	6.7	7	4.3	19	5.3			
시스템 평가	12	20.0	30	22.2	31	19.1	73	20.4			
연구방법	합계	60	100(%)	135	100(%)	162	100(%)	357	100(%)		
사회	0	0.0	1	0.7	2	1.2	3	0.8			
직업	0	0.0	2	1.5	1	0.6	3	0.8			
조직내 환경	1	1.7	1	0.7	2	1.2	4	1.1			
조직 환경	14	23.3	46	34.1	61	37.7	121	33.9			
프로젝트	1	1.7	6	4.4	2	1.2	9	2.5			
그룹/팀	4	6.7	3	2.2	7	4.3	14	3.9			
개인	12	20.0	28	20.7	48	29.6	88	24.6			
추상적인 개념	3	5.0	6	4.4	4	2.5	13	3.6			
컴퓨팅 시스템	8	13.3	9	6.7	13	8.0	30	8.4			
컴퓨팅 요소	17	28.3	33	24.4	22	13.6	72	20.2			
연구방법	합계	60	100(%)	135	100(%)	162	100(%)	357	100(%)		
인지 심리학	2	3.3	10	7.4	10	6.2	22	6.2			
사회/행동 과학	3	5.0	2	1.5	6	3.7	11	3.1			
컴퓨터 공학	15	25.0	30	22.2	21	13.0	66	18.5			
경제학	2	3.3	5	3.7	10	6.2	17	4.8			
정보시스템	13	21.7	44	32.6	37	22.8	94	26.3			
경영관리	11	18.3	4	3.0	21	13.0	36	10.1			
경영 공학	1	1.7	6	4.4	0	0.0	7	2.0			
기타	6	10.0	8	5.9	19	11.7	33	9.2			
해당 없음	7	11.7	26	19.3	38	23.5	71	19.9			
연구방법	합계	60	100	135	100	162	100	357	100		

<표 6> 조직개념에 관한 세부 연구주제별 논문 편수

조직 개념 (Organizational Concepts)	1991~1994		1995~1999		2000~2003		1991~200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조직구조	0	0	1	2	1	1	2	1.2
전략	3	12.5	6	11.8	12	12.5	21	12.3
조직합치	0	0	4	7.8	5	5.2	9	5.3
조직학습/지식관리	1	4.2	4	7.8	5	5.2	10	5.8
기술이전	3	12.5	4	7.8	15	15.6	22	12.9
변화관리	0	0	0	0	0	0	0	0.0
IT 이행	5	20.8	9	17.6	7	7.3	21	12.3
IT 사용/운영	1	4.2	1	2	13	13.5	15	8.8
컴퓨팅기능의 관리	1	4.2	2	3.9	1	1	4	2.3
IT 영향	9	37.5	14	27.5	34	35.4	57	33.3
비즈니스로서의 컴퓨팅/정보	0	0	2	3.9	1	1	3	1.8
법적/윤리적/ 문화적/ 정치적 시사점	1	4.2	4	7.8	2	2.1	7	4.1
합계	24	100	51	100	96	100	171	100

분석단위는 조직단위 범주의 연구가 전체 기간에서 121편(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개인단위 88편(25%), 컴퓨팅 요소 72편(2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1994년 이전까지는 컴퓨팅 요소를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이 행해 졌지만(28%), 1995년 이후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조직을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는 1995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다.

참고학문영역은 전체 기간에서 정보시스템 94편(26%), 해당 없음 71편(20%), 컴퓨터 공학 66편(18%)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기간별로는 1991년에서 1994년 초기에는 컴퓨터 공학을 참고학문 영역으로 사용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25%),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정보시스템을 참고학문 영역으로 하는 연구와 참고학문 영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는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조직개념에 대해서 어떠한 세부 주제들이 연구되었는지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표 6>에는 조직개념에 관한

세부 연구 주제별 자료가 표시되어 있다. 전체 기간이나 세부 기간별에 상관없이 IT 영향(IT impact)에 관한 연구가 30%(총 57편 33%)이상 가장 많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이 기간에 상관없이 꾸준히 연구대상으로 이용되었다. IT 이행(implementation)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약 20%정도 비중을 차지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7%로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의 연구 다양성 비교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 다양성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경영정보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써 그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표 5>에 요약된 결과처럼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성 정도가 과연 국내의 경영정보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써 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지

를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연구 다양성의 적정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국외 경영정보학 연구의 다양성 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국외 경영정보학 학술지의 연구 다양성 평가자료는 Vessey 등[2002]의 연구결과에서 가져왔다.

Vessey 등[2002]은 5개 주요 학술지 즉,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IS Quarterly*, *Decision Sciences*, *Management Science*에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들의 다양성을 평가하였다. 그들은 각 학술지 별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 참고학문영역 등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분류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정보학연구” 한 개의 학술지만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Vessey 등[2002]의 5개 학술지 연구 다양성 평가자료의 평균값을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 다양성 평가 자료와 비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다양성 평가자료를 기간별로 나누어 국외학술지의 연구 다양성과도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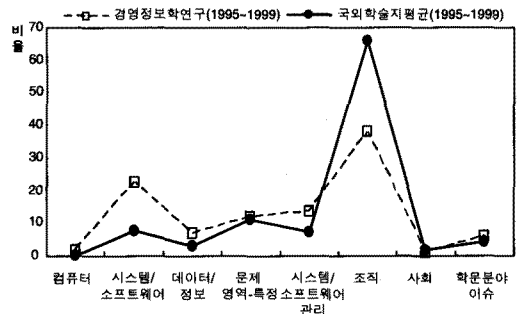
4.2.1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구 다양성 비교

본 절에서는 Vessey 등[2002]의 연구기간과 동일기간인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경영정보학연구”의 다양성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네 가지 다양성 기준영역에 대해서 각각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증법을 수행하였다.³⁾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3) 각 다양성 영역별로 국외학술지의 평균값을 기대값으로, 경영정보학연구의 자료를 관찰치로 삼아 카이제곱 값을 구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주제의 다양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외학술지의 8개 연구주제별 비율을 기대값으로, 국내학술지의 각

5>는 각각 네 가지 다양성 기준영역들에 대해서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의 연구 다양성을 비교한 것들이다.

<그림 2>는 연구주제에 있어서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의 다양성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 모두에서 조직개념과 관련된 주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영정보학연구”에 있어서 그 비율이 국외학술지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정보학연구”는 국외학술지에 비해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념의 주제에 대해서 높은 비율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상으로는 국내와 국외의 연구주제 다양성이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증결과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의 연구주제 다양성간에 차이가 유의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chi^2 = 198.89, p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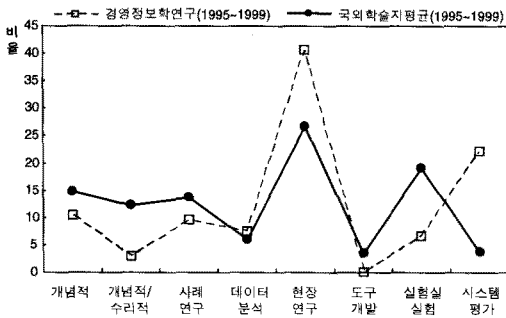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주제 비교

<그림 3>은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 간의 연구방법상의 다양성 비교를 보여준다. 국외학술지는 “경영정보학연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적이었다($\chi^2 = 432.34, p < 0.00$). 여러 연구방법 중에서 국외학술지의 연구에서는 서베이를 통한 현장연구

8개 연구주제의 비율을 관찰치로 하여 카이제곱 값을 구하고, 계산된 카이제곱 값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방법과 실험실 실험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정보학연구”에는 현장연구 방법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실험 등을 활용한 시스템 평가에 편중되고 있는 반면, 개념적/수리적 방법과 실험실 실험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도구개발을 통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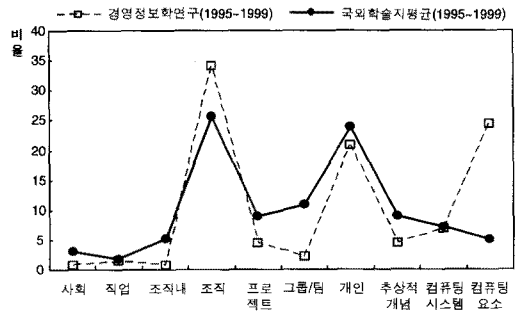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방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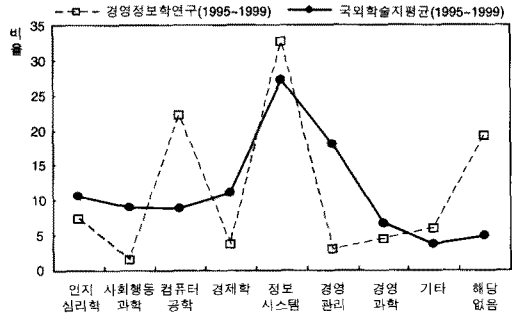
<그림 4>는 분석단위에 있어서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 사이의 연구 다양성을 보여준다.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 모두 조직과 개인 단위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학술지는 “경영정보학연구”에 비해 프로젝트 단위나 그룹/팀 단위의 연구가 보다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경영정보학연구”는 국외학술지에 비해 조직단위와 알고리즘과 같은 컴퓨팅 요소를 보다 높은 비율로 분석단위로 채택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단위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국내외간에 큰 차이가 있음이 유의적으로 검증되었다($\chi^2=349.54, p < 0.00$).

<그림 5>는 참고학문영역에 있어서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경영정보학연구”는 정보시스템과 컴퓨터공학 분야를 이론적 토대로써 주로 활용하는 반면, 국외학술지는 인지심리학, 사회행동과학, 경제학, 경영관리 등의 보다 다양한 참고학문영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

적인 사항은 “경영정보학연구”는 국외학술지에 비해 이론적 토대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해당 없음’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참고학문영역의 다양성도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간에 차이가 유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hi^2 = 323.22, p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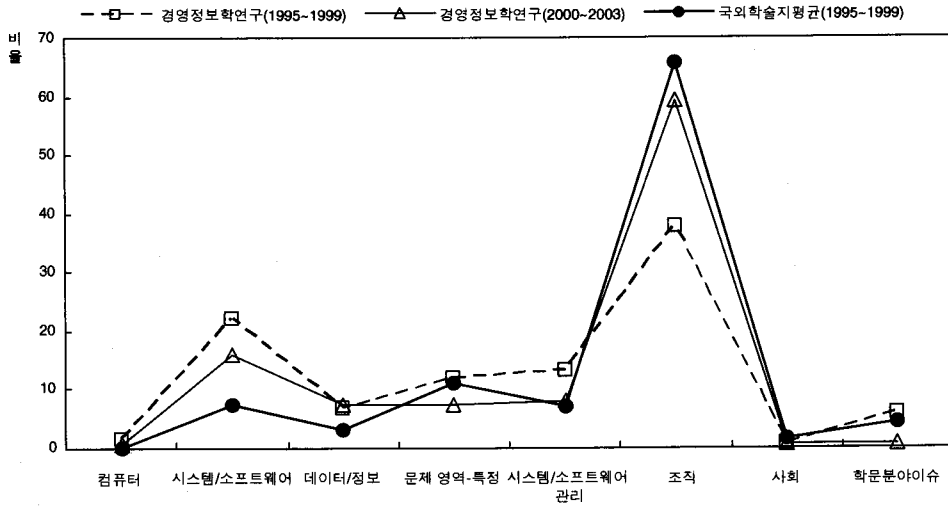
<그림 4> 분석단위 비교



<그림 5> 참고학문영역 비교

4.2.2 기간별 연구 다양성 비교

일반적으로 국내의 연구자들은 세계적인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을 주요한 참고문헌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에 게재되는 연구 논문들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국외학술지의 연구경향을 따를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 다양성을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과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국외학술지의 연구 다양성과



<그림 6> 연구주제의 기간별 비교

비교함으로써,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경향이 국외학술지의 연구경향에 접근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후로는 표기의 간편성을 위하여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을 1단계 기간이라 하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을 2단계 기간이라 하겠다.⁴⁾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는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의 네 가지 연구 다양성에 대한 기간별 비교를 보여준다. <그림 6>은 연구주제에 있어서 1단계 기간의 국외학술지의 연구경향을 기준으로 “경영정보학연구”의 기간별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의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경향

차이는 1단계 기간에서 2단계 기간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단계 기간에 있어서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의 연구주제의 다양성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값($\chi^2 = 198.89, p < 0.00$)이 2단계 기간에 있어서의 카이제곱 값($\chi^2 = 77.29, p < 0.00$)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⁵⁾ 또한, 1단계와 2단계의 기간별 차이도 유의적인 것으로 밝혀졌다($\chi^2 = 230.15, p < 0.00$).⁶⁾ 세부적으로 볼 때, 조직개념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1단계 기간 동안의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 경향은 국외학술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2단계 기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소프트웨어와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와 관련된 차이도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경영정보학연구”가 창간된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을 3기간 즉, 1991년부터 1999년까지, 1999년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로 나누어 연구 다양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불과 60편의 연구만이 게재되었고 국내의 경영정보학이 정착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연구들이기 때문에, 다른 기간들에 이루어진 연구들과 비교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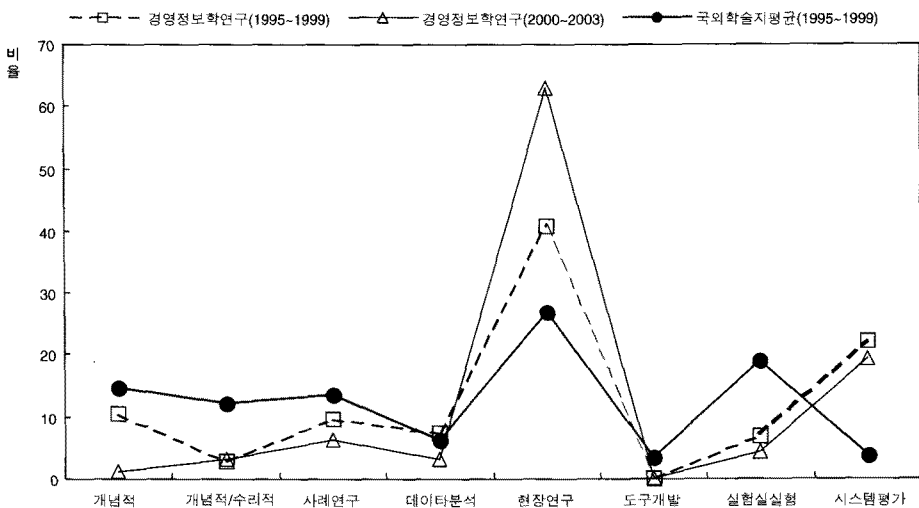
5) 국외학술지의 값을 기대값으로, 국내학술지의 1단계와 2단계 기간의 값을 각각 관찰값으로 하여 카이제곱 값을 구하였다.

6) 1단계와 2단계 기간의 다양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2단계 기간의 값을 기대값으로 삼고 1단계 기간의 값을 관찰값으로 하여 카이제곱 값을 구하였다.

<그림 7>은 연구방법에 있어서 1단계 기간의 국외학술지의 연구경향을 기준으로 “경영정보학연구”의 기간별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현장연구 방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외학술지와와의 연구경향 차이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개념적 분석, 사례 연구, 데이터 분석, 실험실 실험 등의 방법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영정보학연구”에 게재되는 연구방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장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 편중되고, 연구방법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1, 2단계의 기간 동안에 도구개발을 수행한 연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기간의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의 연구방법 다양성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값($\chi^2 = 432.34, p < 0.00$)보다는 오히려 2단계 기간에 대한 카이제곱 값($\chi^2 = 545.93, p < 0.00$)이 더 커졌으며, 1단계와 2단계의 기간별 차이도 유의적으로 판명되었다($\chi^2 = 314.52, p < 0.00$). 이는 전체적으로 1단계 기간에서 2단계 기간으로 가면서 국내의 학술지의 연구방법 다양성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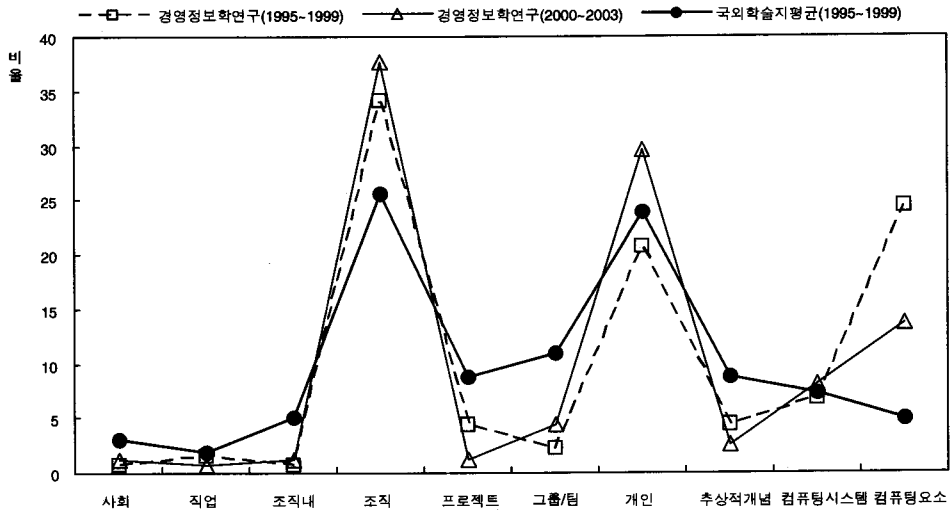
<그림 8>은 분석단위에 있어서 국외학술지의 연구경향을 기준으로 “경영정보학연구”의 기간별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조직단위 수준의 연구와 개인단위 수준의 연구는 2단계 기간에 접어들어 현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외학술지와와의 연구경향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컴퓨팅 요소에 있어서의 연구경향 차이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국내의 경영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분석단위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국외학술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단계 기간의 국내의 연구의 분석단위 다양성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값($\chi^2 = 349.54, p < 0.00$)이 2단계 기간($\chi^2 = 152.39, p < 0.00$)에 줄어들었으며, 1단계와 2단계 기간별 차이도 유의적이었다($\chi^2 = 87.74, p < 0.00$).

<그림 9>는 참고학문영역에 있어서 국외학술지의 연구경향을 기준으로 “경영정보학연구”의 기간별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컴퓨터공학, 정보시스템, 경영과학 등을 참고하는 연구들은 2단계 기간에 현격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컴퓨터공학 관련 참고학문영역들은 시간의 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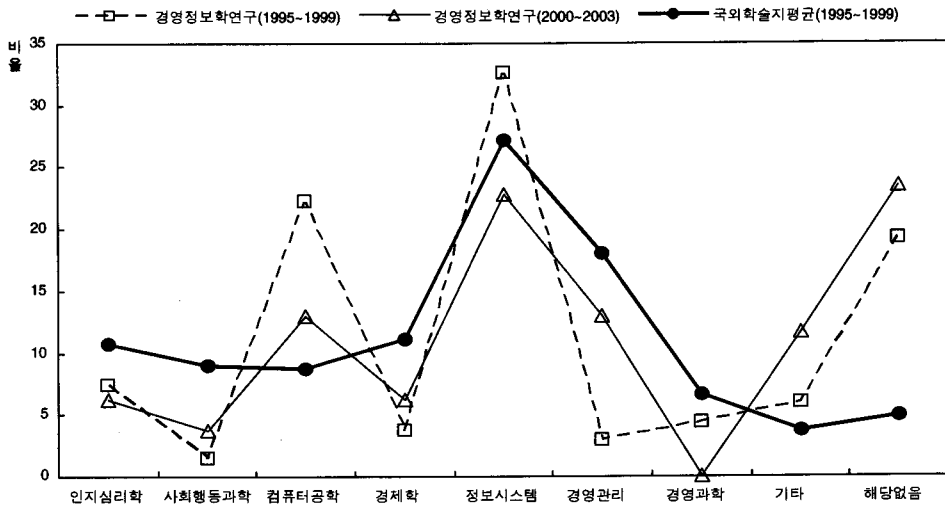


<그림 7> 연구방법의 기간별 비교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 다양성 평가



<그림 8> 분석단위의 기간별 비교



<그림 9> 참고학문영역의 기간별 비교

름에 따라 국외학술지의 연구 경향과 가까워 지는 반면, 경영과학 관련 참고학문영역은 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관리, 기타분야 등을 참고하는 연구들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영관리 관련 참고학문영역을 인용하는 연구는 국외학술지의 연구경향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반해, 기타분야 관련

참고학문영역은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경영정보학연구”에 게재된 연구들 중 주요한 이론 참고학문영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당 없음’으로 분류한 연구들의 비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외학술지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1단계 기간($\chi^2 = 323.22, p <$

0.00)에서 2단계 기간($\chi^2 = 377.65, p < 0.00$)으로 갈수록 국내외 경영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참고학문 영역의 다양성 차이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단계와 2단계의 기간별 차이도 유의적이었다($\chi^2 = 87.79, p < 0.00$).

V. 결론 및 토론

5.1 결론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양성의 네 가지 기준영역 모두에서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의 연구 경향은 전체적으로 상이한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 참고학문영역에 있어서 “경영정보학연구”는 국외학술지에 비해 소수의 연구주제, 연구방법, 분석단위, 참고학문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조직관련 문제에,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현장연구에, 분석단위에 있어서는 조직 및 개인단위에, 참고학문영역에 있어서는 컴퓨터공학과 정보시스템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에 따른 국외학술지와와의 연구경향의 전체적인 격차는 연구주제와 참고학문영역에 있어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연구방법과 분석단위 등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학술지와 비교하여 “경영정보학연구”의 연구 다양성에 있어서의 두 가지 특이 사항이 발견되었다. 그 중 하나는, “경영정보학연구”에는 국외학술지에 비해 기술적 측면의 연구들이 높은 비율로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국외학술지에 비해 “경영정보학연구”에서는 연구주제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념을, 연구방법으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실험 등을 사용하는 시스템 평가를, 분석단위로는 알고리즘과 같은 컴퓨팅 요소를, 참고학

문영역으로는 컴퓨터공학 등을 사용하는 연구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게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참고학문영역과 관련하여 “경영정보학연구”에는 주요한 참고학문영역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연구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에 따른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토론

본 연구는 “경영정보학연구”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경영정보학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경영정보학연구”를 세계적인 국외학술지들과 네 가지 다양성 기준영역별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비추어 “경영정보학연구” 학술지 자체의 발전 방향과 더 나아가서 국내 경영정보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연구의 다양성과 관련한 내용이다. 연구주제와 참고문헌에 있어서 “경영정보학연구”와 국외학술지들과의 격차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나 연구방법과 분석단위에 있어서 국외학술지에 비해 편중된 연구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국내 경영정보학 연구가 국외 연구들에 비해 연구자료 수집에 있어서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의 경영정보학 연구자들은 서베이에 의한 현장 연구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을 습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개념적 분석과 도구개발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경영정보학연구”의 전문학술지로서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다. 주요 경영정보학 관련 국외학술지는 기술적 측면의 연구주제 보다는 조직 또는 관리적 측면의 연구주제를 높

은 비율로 게재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경영정보학연구”는 기술적 측면의 연구를 상대적으로 많이 게재하고 있다. 이는 경영학의 하나의 분과학문으로써 경영정보학의 학문적 위상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경영정보학연구”가 “경영”정보학의 전문학술지로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경영정보학내의 지식축적과 관련된 내용이다. 경영정보학은 학문적 위상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발전 초기 단계의 응용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타 학문으로부터의 이론들을 도입,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Cheon 등, 1991; Culnan, 1986; 1987]. 그러나, <그림 5>와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경우 대부분 주요한 핵심 참고학문영역을 명확히 분류할 수 있는 반면에 “경영정보학연구”에 게재된 많은 논문들은 주요한 핵심 참고학문영역을 명확히 분류할 수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연구자들이 지배적이지 않은 너무 많은 참고학문영역들에 의존하거나, 단순한 선행연구의 인용에 의해 참고학문영역을 명시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Vessey 등, 2002]. 이것은 지식축적을 통한 학문적 발전의 중요한 저해요소[Keen, 1980]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 핵심 이론으로 활용하는 참고학문영역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적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학문 분야들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영정보학의 학문적 위상에 관한 내용이다. 세계적인 학술지들은 다양성 기준영역들에서 “경영정보학연구”에 비해 독특한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학술지들은 몇 가지의 연구주제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집중된 연구주제 내에서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 분석단위, 참고문헌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국

외학술지들은 ‘통제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정보학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인 삼각 측량(triangulation), 누적 전통(cumulative tradition) 등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의 연구자들이 경영정보학의 기초이론들을 심도 있게 구축하거나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감을 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는 Benbasat and Weber[1996]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 경영정보학이 학문적 위상을 잃게 될 지도 모른다. 경영정보학 분야의 독자적인 학문 영역의 성립 및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정보학 이론의 정립 및 발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통제된 다양성 즉, 집중된 연구주제하에서 다양한 연구방법, 분석단위, 참고학문영역 등을 활용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7) 최근에 Benbasat and Zmud[2003]도 경영정보학의 본질을 타 학문분야와 구별해주는 핵심 특성(core property)이 결여된 연구주제의 다양성은 경영정보학의 정체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동일한 의견을 주장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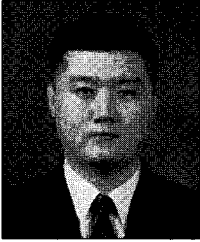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 [1] 백상용, 박경수, “한국경영정보학 연구 경향 분석: 1974-1993,” *경영정보학연구*, 제 5권 제2호, 1995, pp. 37-50.
- [2] 오재인, “경영정보학의 학문적 위상에 관한 연구,” *경영정보학연구*, 제8권 제3호, 1998, pp. 181-194.
- [3] ACM, ACM Computing classification syste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New York, 1998, <http://www.acm.org/class/1998>.
- [4] Alavi, M. and Carlson, P., "A review of MIS research and disciplinary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deans/administrator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8, No. 4, 1992, pp. 45-62.
- [5] Bariff, M.L. and Ginzberg, M.J., "MIS and the Behavioral Sciences: Research Patterns and Prescriptions," *Data Base*, Vol. 14, No. 1, 1982, pp. 19-26.
- [6] Barkhi, R. and Sheetz, S. D. "The State of Theoretical Diversity in Information Systems," *Communications of the AIS*, Vol. 7, No. 6, 2001, pp. 1-18.
- [7] Barki, H., Rivard, S. and Talbot, J. "An Information Systems Keyword Classification Scheme," *MIS Quarterly*, Vol. 12, No. 2 1988, pp. 299-322.
- [8] Barki, H., Rivard, S. and Talbot, J., "A Keyword classification scheme for IS research literature: An update," *MIS Quarterly*, Vol. 17, No. 2 1993, pp. 209-226.
- [9] Basu, A. and Blanning, R. W., "Analysis of Assumptions in Model bases Using Metagraphs," *Management Science*, Vol. 44, No. 7, 1998, pp. 982-995.
- [10] Benbasat, I. and Weber, R., "Research Commentary: Rethinking Diversity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7, No. 4, 1996, pp. 389-399.
- [11] Benbasat, I. and Zmud, R., "The Identity Crisis Within the IS Discipline: Defining and Communicating the Discipline's Core Properties," *MIS Quarterly*, Vol. 27, No. 2, June 2003, pp. 183-194.
- [12] Cheon, M.J., Grover, V. and Sabberwal, R., "The Evolution of Empirical Research in IS: A Study in IS maturity,"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 24, No. 5, 1993, 107-119.
- [13] Cheon, M.J., Lee, C.C. and Grover, V., "Research in MIS-Points of Work and Referenc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Culnan and Swanson Study," *Data Base*, Vol. 23, No. 2 1991, pp. 21-29.
- [14] Claver, E., Gonzalez, R. and Llopis, J. "An analysis of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1981-1997),"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 37, No. 4, 2000, pp. 107-119.
- [15] Cohen, J., "A Coefficient of Agreement for Nominal Sca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20, No. 1, 1960, pp. 37-46.
- [16] Culnan, M. "Mapp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MIS, 1972-1982: A co-citation Analysis," *Management Science*, Vol. 32, No. 2 1986, pp. 156-172.
- [17] Culnan, M. "Mapp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MIS, 1980-1985: A co-citation Analysis," *MIS Quarterly*, Vol. 11,

- No. 3 1987, pp. 341-350.
- [18] Culnan, M. and Swanson, E.B., "Research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980-1984: Points of Work and Reference," *MIS Quarterly*, Vol. 10, No. 3, 1986, pp. 289-301.
- [19] Farhoomand, A.F., "Scientific Progres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ata Base*, Vol. 18, No. 4, 1987, pp. 48-56.
- [20] Farhoomand, A.F. and Drury, D.H., "A Historiographical Examination of Information Systems," *Communications of the AIS*, Vol. 1, No. 19, 1999, pp. 1-26.
- [21] Glass, R.L.,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opic Areas of Computer Science, Software Engineering, and Information Systems," *Journal of Systems and Software*, Vol. 19, No. 3, 1992, pp. 233-246.
- [22] Grover, V., Jeong, J.S., Kettinger, W.J., and Wang, S., "The Implementation of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12, No. 1, 1995, pp. 109-144.
- [23] Hamilton, S. and Ives, B., "Knowledge Utilization among MIS Researchers," *MIS Quarterly*, Vol. 6, No. 4, 1982a, pp. 61-77.
- [24] Hamilton, S. and Ives, B., "MIS Research Strategies,"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 5, No. 6, 1982b, pp. 339-347.
- [25] Harrison, R. and Wells, M., "A Meta-analysis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 *Papers from the Conference on Empirical Assessment in Software Engineering (EASE)*, S. Linkman (ed.), Staffordshire, UK: Keele University Press, 2000, pp. 1-15.
- [26] Jenkins, A.M., "Research Methodologies and MIS Research," In *Research Methods in Information Systems*, E. Mumford, R. Hirschheim, G. Fitzgerald, and T. Wood-Harper (eds.), Amsterdam: Elsevier Science, 1985, pp. 103-117.
- [27] Keen, P.G.W., "MIS Research: Reference Discipline and Cumulative Traditio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Vol. 1. New York: ACM, 1980, pp. 8-18.
- [28] Kwon, T.H. and Zmud, R.W., "Unifying the Fragmented Models of Information Systems Implementation," In *Critical Issues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R. Boland and R. Hirschheim (ed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7, pp. 227-251.
- [29] Lai, V.S. and Mahapatra, R.K., "Exploring the Research in Information Technology Implementation,"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 32, No. 4, 1997, pp. 187-201.
- [30] Landis, J.R. and Koch, G.G.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Vol. 33, No. 1, 1977, pp. 159-174.
- [31] Lucas, H.C., "The State of the Information Systems Fields," *Communications of the AIS*, Vol. 1, Article 1, January 1999, pp. 1-6.
- [32] Nunamaker, J.F. Jr., Chen, M. and Purdin, T.D.M., "Systems Development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7, No. 3, 1991-1992, pp. 89-106.
- [33] Palvia, P.C., Rajogopalan, B., Kumar, A. and Kumar, N., "Key Information Systems Issues: An Analysis of MIS Publi-

- cation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Vol. 32, No. 3, 1996, pp. 345-355.
- [34] Prewitt, E., "The state of the CIO," *CIO*, Vol. 15, No. 10, 2002, pp. 48-49.
- [35] Rademacher, R., "The Changing Profile of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995-2000,"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Vol. 42, No. 1, 2001, pp. 13-16.
- [36] Robey, D.R., "Research Commentary: Diversity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Threat, Promise, and Responsibilit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7, No. 4, 1996, pp. 400-408.
- [37] Swanson, E.B. and Ramiller, 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Thematics: Submissions to a New Journal, 1987-1992,"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4, No. 4, 1993, pp. 299-330.
- [38] Vessey, I., Ramesh, V. and Glass, R. L.,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An Empirical Study of Diversity in the Discipline and Its Journal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 19, No. 2, 2002, pp. 129-174.
- [39] Wang, S., "Unpredictability of Standard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s in Classification," *Management Science*, Vol. 41, No. 3, 1995, pp. 555-559.
- [40] Watson, H.J., Taylor, K.P, Higgins, G., Kadlec, C. and Meeks, M., "Leaders Assess the Current State of the IS Academic Discipline," *Communications of the AIS*, Vol. 2, No. 2, 1999, pp. 1-27.
- [41] Westin, S.M., Roy, M. and Kim, C.K., "Cross-Fertilizations of Knowledge: The Case of MIS and its Reference Disciplines,"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Journal*, Vol. 7, No. 2, 1994, pp. 24-34.

◆ 저자소개 ◆



김기문 (Kim, Gi Moon)

경희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경영정보전공)와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경영학석사(Computer Information Systems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다. 삼성화재 정보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박사 과정(정보시스템전공)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기술 전략 및 관리, 정보기술의 비즈니스 가치, e-Business, 전자상거래,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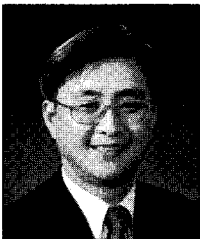
박충신 (Park, Choong Shin)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정보시스템)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조사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기술 기반 구조, 정보기술 역량, ERP, 정보시스템 평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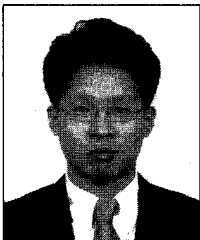
김준석 (Kim, Joon Seok)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의 교환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제5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보시스템 학술대회장(Pacific-Asia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2001)이었으며, 동시에 2001년 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장으로 정보시스템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였다. 또한, 2002년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보기술 투자가 개인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모형 구축과 현장 연구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호근 (Lee, Ho Geun)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과학 석사학위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경영정보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네델란드 에라스무스 대학과 홍콩과학기술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통신, 인터넷 비즈니스, 전자 상거래,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이다.



임건신 (Im, Kun Shin)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정보시스템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석사, 박사(회계학 전공)학위를 취득하였다.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MIS로 두 번째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University of Colorado at Denver에서 정보시스템 조교수로 재직한 바가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기술의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정보기술 성과변수의 개발 등이다.

◆ 이 논문은 2004년 8월 17일 접수하여 1차 수정을 거쳐 2005년 5월 30일 게재확정되었습니다.